

## 현대문학반 학술답사 보고서

### 1. 결단식 및 편성

통산 11번째인 금번 학술답사를 위해 4월 23일 1동 203호에서 예비모임 및 결단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답사를 위한 간단한 준비절차를 숙지한 후, 답사지역에 대한 간단한 예비 안내를 받았다. 답사 목적지는 강원도 정선 일대였으며, 이효석의 작품과 관련된 지역 문화와 정선 아라리에 담긴 애환을 살피는 것을 금번 답사의 목적으로 하였다.

#### (1) 기간

2000년 5월 1일~5월 3일

#### (2) 지역

강원도 정선군, 영월군 일대

#### (3) 참가 인원

지도교수 : 한계전, 조남현, 권영민, 신범순

인솔조교 : 전봉관

박사과정 : 후지이시 다카요, 김은경, 이제현, 이수영, 최태원, 서재길,  
노지승, 최혜림, 조보라미, 이영아, 이경재(이상 11명)

석사과정 : 강심호, 서형범, 이영석, 소래섭, 이수정, 박진우, 전우형, 김  
승민, 손유경, 김미지, 백지혜, 이학영, 김지미, 차미령, 송민  
호, 신형철, 정여울, 이경현, 장두영, 이한별, 조연정(이상 21명)

학사과정 : 김예리, 박어령, 권희철, 김지영, 나민애, 강민규, 박상수(이  
상 7명)

## 2. 답사일정

2000년 5월 1일 반포 킴스클럽 앞에서 8시 10분 집결하여 답사에 필요한 준비물을 점검하고 8시 30분 평창군 봉평면으로 출발하여 오전 11시 이효석의 생가마을을 답사하였다. 인근에 있는 가산공원에서 이효석 기념비와 건립 경위를 살피고, 이효석 생가 그리고 팔석정, 울곡서당 등지를 답사하였다. 이곳은 1992년 한차례 답사했던 곳이었는데, 효석 생가가 식당으로 바뀌어 있는 등 훼손이 심각한 상태였다. 봉평에서 메밀국수, 메밀전, 메밀뚝말이 등 토속음식으로 점심을 먹고, 정선으로 출발하여 정선 소금강을 지나 오후 4시 물운대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정선 아라리에 관한 석사과정 이수정의 주제 발표를 통해 정선 아라리의 연원과 그 속에 담긴 강원도인들의 삶의 애환을 일부나마 알 수 있었다. 주제발표와 토론을 마치고 버스편으로 아우라지 숙소로 향했다. 숙소로 가는 길에 정선읍내에 잠시 들렀는데, 그곳에서 정선 아라리를 구연할 수 있는 제보자를 우연히 만나 정선 아라리를 채록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아우라지 숙소에 도착하여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이효석 문학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다. 학부생 김지영이 이효석의 생애와 작품 연보에 대해 발표했고, 박사과정 노지승은 「리얼과 낭만의 갈림길에 선 몽상가」라는 작가론을 발표하였다.

5월 2일 답사 둘째날의 일정은 정선 장터를 답사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곳 정선 장터는 현존하는 몇 곳 남지 않은 5일장으로, 외지인에게 보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부활시킨 것이 아니라 현지인의 삶이 그대로 보여지는 오래된 정취가 남아 있어 인상적이었다. 정선 장터의 답사를 마친 후 영월로 이동하였다. 숙소에 짐을 풀고, 점심을 먹은 후 어라연으로 이동하여 동강의 생태 답사를 시작하였다. 애초의 계획은 동강변을 따라 도보로 이동하면서 동강의 생태와 그곳에 얹힌 선인들의 삶을 살펴보려 하였으나, 도보 이동시 예상 이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동강의 생태와 그에 관련된 문화적 정취를 확인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현지민의 조언에 따라 배를 빌어 동강 줄기를 따라 내려오면서 생태를 조사하였다. 거북바위, 어라연 등의 풍경을 완상할 수 있었으며, 그곳에 서식하고 있는 희귀 동식물들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옛꾼들이 빠져죽은 곳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

회가 되었다. 동강에 관련된 자료를 자료집을 통해 숙지한 이후 직접 동강을 따라 물길에 삶을 맡겼던 뗏꾼들의 삶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숙소에 도착하여 저녁을 먹고, 곧이어 석사과정 이영석의 「동강의 역사와 삶과 역사」, 석사과정 송민호의 「문학작품 속의 단종」이라는 주제 발표를 듣고 열띤 토론의 시간이 있었다. 이후 금번 답사의 주제였던 이효석 문학의 배경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평가를 교환하며 이후 이어질 현대문학반 답사의 과제들을 하나씩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답사 마지막 날인 5월 3일에는 단종의 유배지인 청령포를 답사하였다. 출발이 늦어진 관계로 청령포행 시내 버스를 놓치고 도보로 이동하였다. 이 때 문에 애초 계획했던 장릉 답사는 할 수 없었다. 역시 청령포에서 영월읍까지 도보로 이동하여 열차편으로 서울로 이동, 공식적인 답사 일정을 마무리했다.